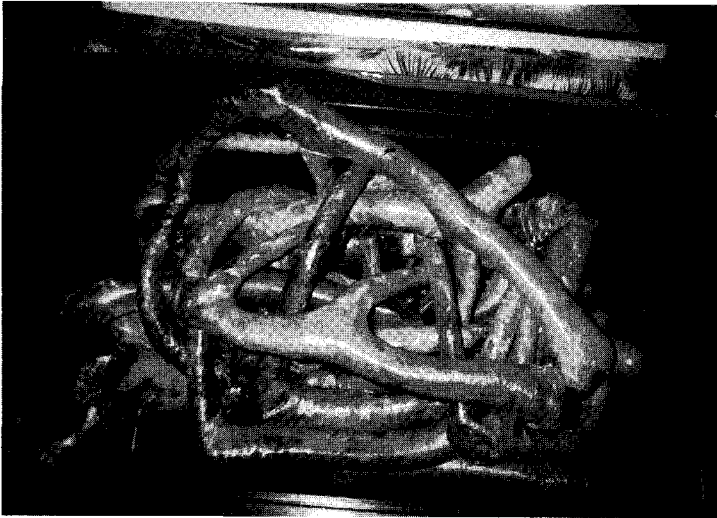


# 수입생녹용 부정 유통업자 적발



△ 스티로폴 상자에 담아 부정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수입 생녹용

지난 4월 29일 충북 괴산군 증평 소재 Y 농장에서 수입 생녹용 60kg을 부정 유통시키려는 남모씨등 2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청주세관에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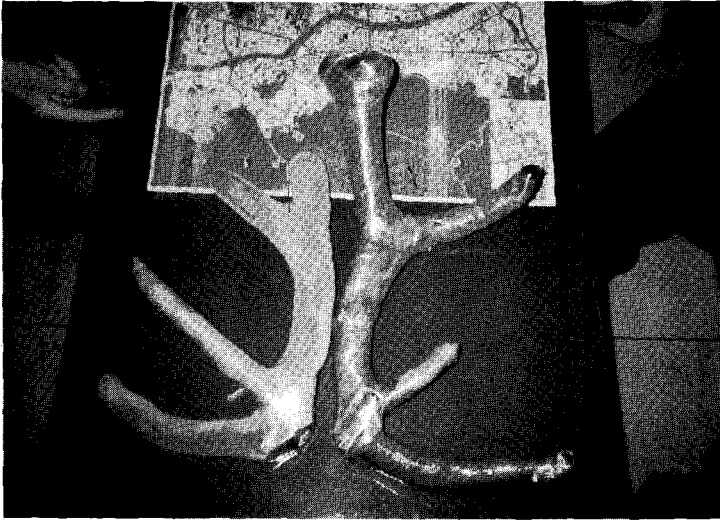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양록업계에서 말로만 무성했던 수입생녹용 부정 유통업자 적발은 처음 있는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요청했다.

◇**제보접수**=4월 23일 류모이사로부터 수입생녹용을 부정 유통시키려 한다는 제보가 본회에 접수됐다. 회장과 명예세관원(김은성 부회장, 홍보국장)은 농장방문 일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장을 급습하기로 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증평 소재 Y농장 김모 사장에게도 비밀에 부칠것을 단단히 일러 두었다.

◇**현장급습**=수입 생녹용 부정 유통업자가 4월 29일 13시에 녹용을 갖고 농장에 들른다는 소식을 접한 회장은 류모 이사와 함께 청주동부경찰서 형사 2명을, 명예세관원은 서울 본부세관에 들려 세관원 2명을 대동하여 증평으로 급파했다. 현장을 급습한 형사와 세관원은 스티로폴 박스 2개에 가득 담긴 레드디어 녹용 60kg을 압수한 후 남모 씨등 2명을 붙잡아 청주 동부경찰서로 향했다.

◇**수사진행**=청주 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수사를 받던 이들은

처음에는 국산녹용이라고 우기다 서울본부 세관원이 국내 생산지를 추적해 나가자 수입녹용이라고 실토했다. 당일 아침 서울 S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 수입 생녹용 전지



△ 수입 생녹용을 신고 온 겔로퍼(왼쪽)

인수하여 가져왔다는 것이다. 놀랄 만한 사실은 수사과정중 부정유통업자 1명이 생약협회 간부의 조카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법 적용**=수입 생녹용 부정유통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약사법 위반, 관세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중 가장 무거운 관세법 위반이 적용되어 청주세관으로 이첩되었다.

청주세관에 따르면 5월 26일 현재 압수된 녹용을 식의약청의 품질검사(회분함량)를 받아 적합하면 절차에 따라 유통하고, 부적합하면 폐기처분 하는데 폐기처분될 공산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된 녹용의 도매시세 40%에 해당 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농가의 제보가 중요**=이번 수입 생녹용 부정 유통업자 적발은 본회 류모 이사과 증평 Y농장 김모 사장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수입 생녹용 시중 유통은 어떠한 형태의 경우에도 불법이며, 농가의 제보만이 근절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여 투철한 신고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사슴농가에서는 주위에서 수입 생녹용을 취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면 즉시 협회로 제보하기 바란다.\*

## 깨달음의 길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행동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하늘나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